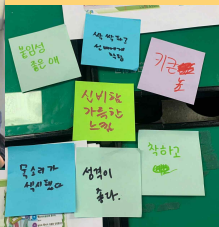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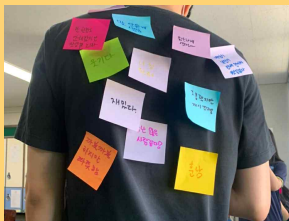


솔리언 동아리 활동 일지

조 : STARBUCKS 조원 : 공민제, 이금빈, 김성우, 선주현, 정예원
활동 날짜 : 2021. 06. 16. 수요일
활동 주제 : 여기역차 단계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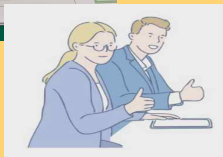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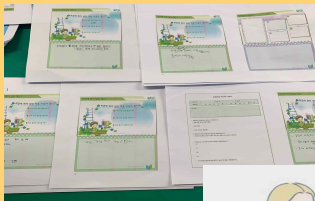
1. 활동 내용



이번 첫번째, 활동은 단체 활동을 하였는데 서로서로의 첫인상을 포스트잇에 적어 등에 붙여주는 활동이었다. 그 포스트잇 중 각자 가장 맘에 드는 말을 뽑아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 조원 공민제 선배님은 '성격이 좋다.', '목소리가 sexy했다.'를 골랐다. 이금빈 선배님은 '착하고 예뻐.'를 고르고 김성우는 '키큰놈.'을 골랐다. 또 선주현은 '불임성 좋은 애.', '씩씩하고 선배에게 잘함.'을 고르고 정예원은 '신비함이 가득한 느낌.'을 골랐다.

솔리언 동아리 활동 일지

2. 활동 내용



두번째 활동으로는 여기여기역차 단계에 알아보고
조원들끼리 실제로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서로
자신들이 화났을 때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
떤 결과와 나왔는지를 말해보았다. 그 중 제일 공감
되는 상황을 뽑아서 여기역차 단계로 공감해보았다.
뽑힌 상황은 아무 이유없이 화가 날 때였다. 여기역
차 단계를 적용해보면 여 : 이유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기 : 가끔가다가 이유없이 화났었구나? 역 : 그
럴수도 있겠구나~ 차 : 사람마다 이유있어서 짜증나
거나 이유없이도 짜증날 수도 있겠다.

솔리언 동아리 활동 일지

3. 느낀 점



공민제: 동아리원 전체가 대화를 하는 활동을 한 것은 처음이여서 재밌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두번 째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는 태도를 안거같아 좋았다.

이금빈: 오늘한 활동으로 동아리원들과 더 가까워서 얘기를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또래상담을 더 잘할 수 있을것같다.

김성우: 첫인상 적기 활동으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생각할수있었고 두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알수있었다.

선주현: 오랜만에 단체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단체활동을 했을 때보다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첫인상을 얘기하면서 서로를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조활동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재밌어서 좋았고 STARBUCKS라는 조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정예원: 첫인상 적어주기 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조금씩 더 친해지게 된 것 같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긋나 단계로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